

Morning Meeting Notes

2026-06-25



What's Inside

[미국주식] 여의도 হাসপাত - 위시가 안대를 씌운 것이지 세상이 깜깜해진 것이 아니다
 [미국주식] 소프트웨어 산업 - 최근 약세 배경과 향후 방향성 점검

주식시장

국내 증시는 전일 낙폭 과대 인식 속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마감. 외국인인 코스피를 4.6조원 순매도.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 바이오 USA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오, 제약 업종 강세 두드러짐. 한편,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 9.8% 상승하며 시총 1위 탈환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 유가 급락에 항공, 여행 등 경기민감주 강세 시현. AI 관련 기술주는 고평가 부담에 약세 시현. 특징으로는 마이크로인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다음 분기 가이드선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15% 급등

금리&환율

국고채 금리는 상승 마감. 차주 예정된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앞두고 경계감에 컷프 스티프닝 양상. 단기물은 분기말 3년 국채선물 바스켓 채권 리콜과 단기 스와프 강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지지되는 모습
 미국채 금리는 하락 마감. 미국채는 국제 유가가 이란 전쟁에 따른 상승분을 거의 되돌리는 급락세를 연출하자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은 높아진 레벨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세에 상승
 달러 인덱스는 상승 마감. 달리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감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강세

주요뉴스

호르무즈 원유 수송량 급증
 무어 데이터 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미-이란 종전 MOU 체결 이후 최소 2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을 나갔고, 이 선박들에는 약 3,5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었음. 또한 MOU 체결 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원유 수송량은 일 평균 약 480만배럴로 증가

New Publications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AI/로보틱스] 일본 기업 방문 후기 - Bottleneck 해소에는 시간 필요(2026-06-24)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AI/로보틱스] 대만 Computex 방문 후기 - Agentic AI가 AX 견인(2026-06-10)
 [경제] 2026년 하반기 경제 전망: 기호지세(騎虎之勢) - Ride With Us or Collide With Us(2026-06-02)
 [주식전략] 2026년 하반기 주식전략 전망: AI 압축 포트폴리오로 돌파하라(2026-05-29)
 [전기전자/디스플레이](OVERWEIGHT) 2026년 전기전자/디스플레이 하반기 전망 - 아직 Peak는 오지 않았다(2026-05-29)
 [건설](OVERWEIGHT) 2026년 건설업종 하반기 전망 SCREENING(2026-05-28)
 [자산배분] 하반기 자산배분 전략 - 한국 주식 중심, 채권은 캐리 중심 대응(2026-05-26)
 [투자전략팀] 2026년 하반기 투자전략 전망: 기호지세(騎虎之勢) - Ride With Us or Collide with Us(요약)(2026-05-26)

Rating, Target Price Changes

SK하이닉스	BUY	2,650,000 원	▷ BUY	3,300,000 원	(2026-06-24)
삼성전기	BUY	2,300,000 원	▷ BUY	2,800,000 원	(2026-06-24)
테스	BUY	156,000 원	▷ BUY	234,000 원	(2026-06-2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규		▷ BUY	1,780,000 원	(2026-06-19)
현대로템	신규		▷ BUY	284,000 원	(2026-06-19)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신규		▷ BUY	1,320,000 원	(2026-06-19)
한화시스템	신규		▷ BUY	125,000 원	(2026-06-19)
한국항공우주	신규		▷ BUY	202,000 원	(2026-06-19)
한솔케미칼	신규		▷ BUY	410,000 원	(2026-06-19)
와이씨	신규		▷ BUY	19,000 원	(2026-06-19)
한일시멘트	M.PERFORM	21,000 원	▷ BUY	19,000 원	(2026-06-19)
SNT에너지	BUY	62,000 원	▷ BUY	52,000 원	(2026-06-19)
아이에스동서	BUY	48,000 원	▷ BUY	31,000 원	(2026-06-19)
한미글로벌	BUY	32,000 원	▷ BUY	29,000 원	(2026-06-19)
LX세미콘	BUY	62,000 원	▷ BUY	60,000 원	(2026-06-19)

외국인 순매수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순매수	금액(백만)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71,643	삼성전자	1,945,175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52,607	SK하이닉스	1,798,311
LS	46,527	삼성전기	195,287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45,351	삼성전자우	126,944
LG이노텍	35,669	알테오젠	74,466

외국인 순매도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순매도	금액(백만)
SK하이닉스	-3,637,483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	-284,478
SK스퀘어	-546,747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	-201,413
삼성전자	-179,025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	-96,451
삼성전자우	-158,495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	-93,624
현대차	-110,398	현대모비스	-59,559

국내시장 동향	증가	D-1(%)	D-20(%)
KOSPI	8,471.02	+3.26	+2.94
대형주	9,424.33	+3.46	+4.42
중형주	4,093.19	+0.46	-14.36
소형주	2,281.93	+0.67	-14.50
KOSDAQ	909.31	+2.00	-19.75

투자자별 매매동향	개인	외국인	기관
KOSPI	(억원)	(억원)	(억원)
순매수	26,312	-46,529	19,095
누적순매수(D-20)	338,002	-359,182	13,933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단위 :억 원)			
	611,957	685,171	705,079

업종별 지수	증가	D-1(%)	D-20(%)
건설	154.88	+0.89	-19.01
금융	1,263.90	-0.59	+3.87
운수장비	5,804.88	+0.59	-19.88
유통	752.60	+3.28	+7.52
음식료	4,489.33	+0.12	-7.96
의약품	14,812.17	+7.57	-5.90
전기전자	148,522.40	+4.57	+9.63
철강금속	6,810.61	+1.71	-19.38
화학	4,337.60	+2.26	-12.11
유틸리티	1,109.47	+1.07	-7.61
통신	604.21	-0.03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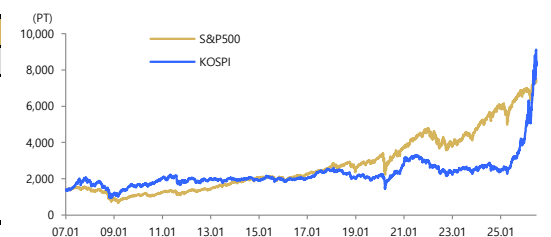
해외시장 동향	증가	D-1(%)	D-20(%)
S&P500	7,358.49	-0.09	-2.15
NASDAQ	25,476.64	-0.43	-4.49
일본	69,174.97	-0.88	+6.42
중국	4,110.81	+0.11	+0.42
독일	24,893.58	+0.00	-1.13

주요 금리 동향	증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3.77	+0.20	+6.10
국고채 (10년)	4.17	+0.00	+6.90
은행채AAA (3년)	4.13	+1.50	+12.40
미국국채 (2년)	4.15	-5.00	+11.70
미국국채 (10년)	4.39	-10.45	-9.10

환율 동향	증가	D-1(%)	D-20(%)
원/달러	1,542.00	+0.19	+2.72
원/백 엔	953.09	+0.02	+1.27
원/위안	226.21	-0.20	+2.15
달러/유로	1.14	-0.19	-2.29
위안/달러	6.82	+0.38	+0.54
엔/달러	161.77	+0.15	+1.42
Dollar Index	101.56	+0.19	+2.35

상품시장 동향	증가	D-1(%)	D-20(%)
WTI (usd/barrel)	70.34	-3.92	-20.68
금 (usd/oz)	4,149.40	+0.00	-6.72
BDI	2,634.00	-1.24	-14.62
천연가스(NYMEX)	3.22	+2.35	+5.95

KOSPI, S&P 추이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의도 하스팟

워시가 안대를 씌운 것이지 세상이 깜깜해진 것이 아니다

Analyst 하장권 research.ha@hmsec.com

마이크론 어닝 우려 + 긴축 베팅 강화로 시장 변동성 확대

마이크론 실적 발표(현지시간 24일 장 마감 후)를 앞두고 긴축 베팅 강화되며 시장 변동성 확대. 마이크로 피어 그룹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큰 코스피는 전일 10% 급락 마감했으며, 뒤이어 개장된 미 증시 역시 마이크로인이 13.2% 급락하며 기술주 급락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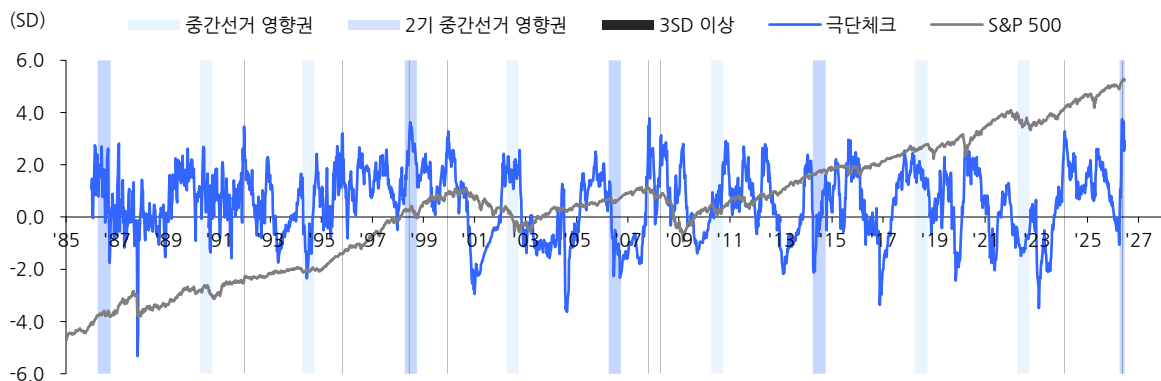
통상 쓸림 완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됨. 확산이 허락되는 장세에서는 순환매 형식을 띄지만, 지금과 같이 확산이 불가피한 장세에서는 주도주 하락폭 우위의 시장 조정으로 이어짐. 1) 하반기까지 물가를 지켜봐야하는 마켓 컬러 2) 중간선거 영향권(2~3분기) 고려하면 3분기까지 주도주(반도체) 중심의 쓸림 지속될 것으로 전망. 확산이 불가능한 장세에서 주도주 변동성은 불가피. 즉, 전일 증시 변동성은 특별한 이슈가 있기보다는 강세장에서 시장의 비효율이 커진 구간이며, 주도주 위주의 과도한 쓸림이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구간으로 판단. 다만, 현재 과도한 긴축 베팅이 완화될 가능성 + 주도주 펀더멘탈의 견조한 추세를 고려하면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조정 시 주도주(반도체) 업종 매수 전략이 유효

워시는 입을 다물었을 뿐 긴축을 외친 것이 아님

지난주 자료(6/18 [여의도 하스팟] 6월 FOMC: 미국 증시 눈높이, 애초에 낮았다)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물가로의 전이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란 사태 정점 대비 긴축 베팅이 강화된 것은 시장의 비효율이 관측되고 있다는 반증. 케빈 워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대를 씌웠을 뿐 그게 긴축을 의미하진 않으며, 당사는 워시가 점도표를 찍었다면 동결을 지지했을 것으로 예상. 애초에 케빈 워시 신임 의장 하에서 점도표는 점점 더 무의미한 지표가 되어갈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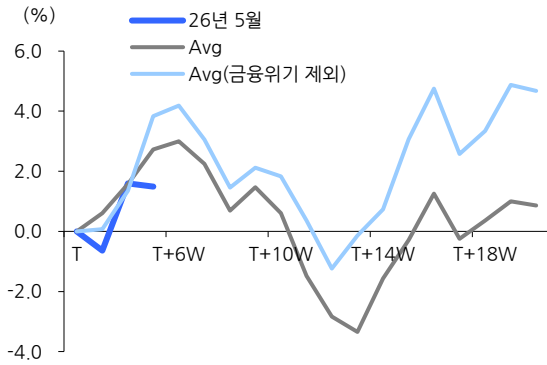
Challenger, Gray & Christmas 감원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현재 AI를 감원 사유로 제시한 비율이 3개월 연속 1위에 등극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도 가속화 흐름이 관측되고 있음. 24년부터 26년(26년은 연율화) AI로 인한 감원 비율은 1.5%→4.5%→22.1%로 가속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임금-물가 Spiral 관측 불가능한 상황. AI 산업전환에 따른 감원 압력은 26년 본격화되기 시작

<그림1> S&P 500 Momentum / Value 52W Rolling Relative Strength (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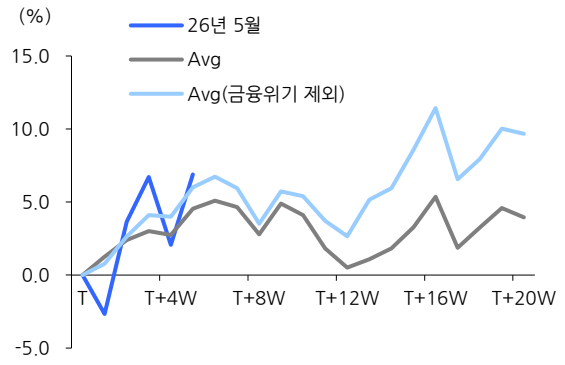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2> 3SD(그림1) 초과 이후 7차례 BM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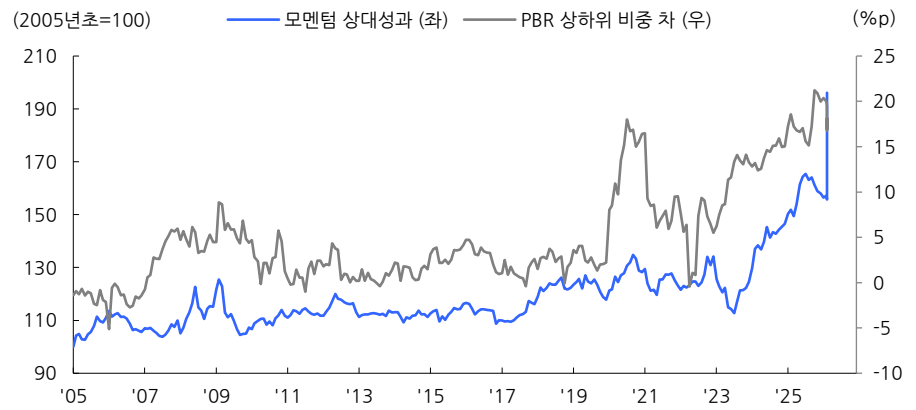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현대차증권

<그림3> 모멘텀은 빠른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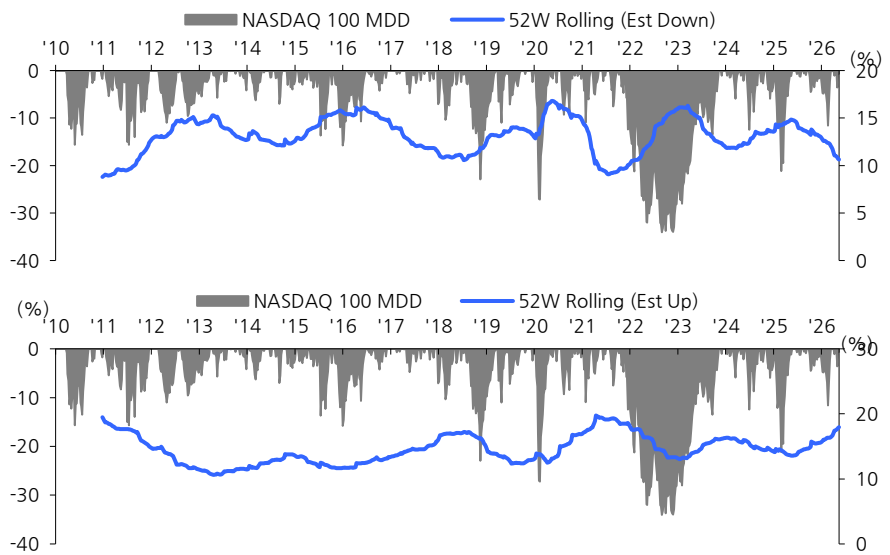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현대차증권

<그림4> 쓸림이 심화된 것은 맞지만 대안이 없음. 3Q까지 쓸림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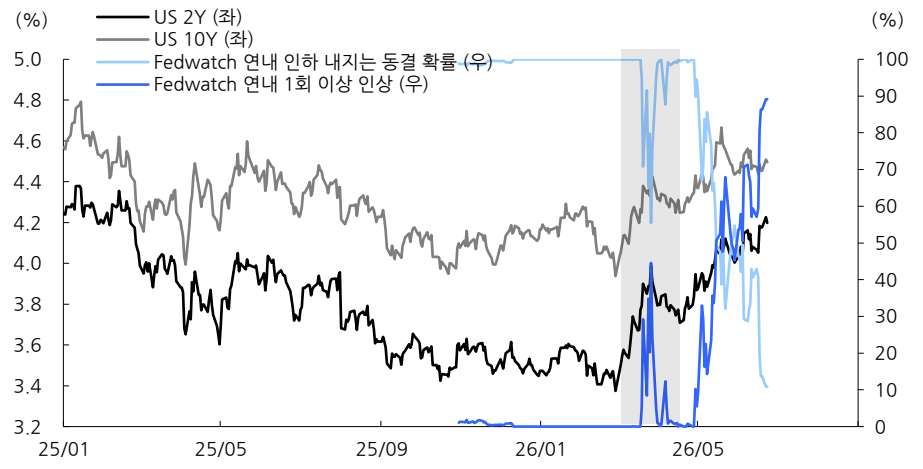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5> 어닝 Revision 변곡점은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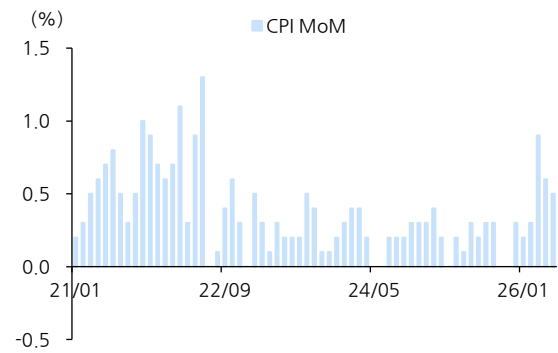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6> 유가 급락에도 이란 사태 정점 대비 긴축 베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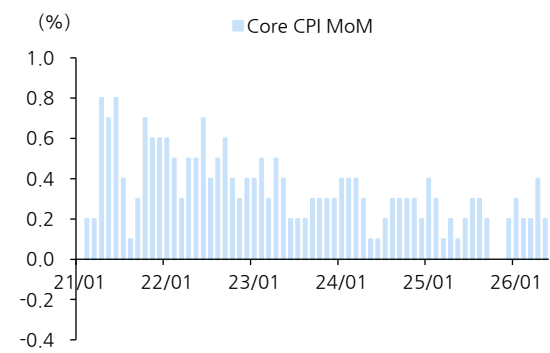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7> 유가 상승으로 헤드라인 CPI 상승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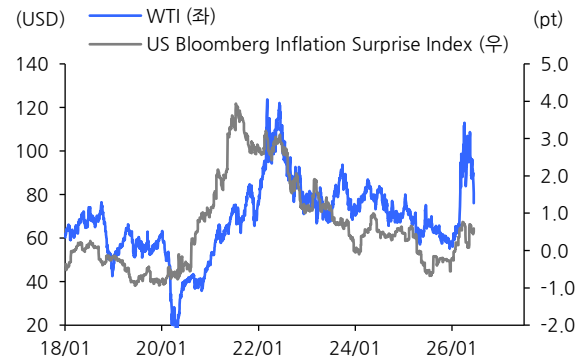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8> Core CPI은 이전 레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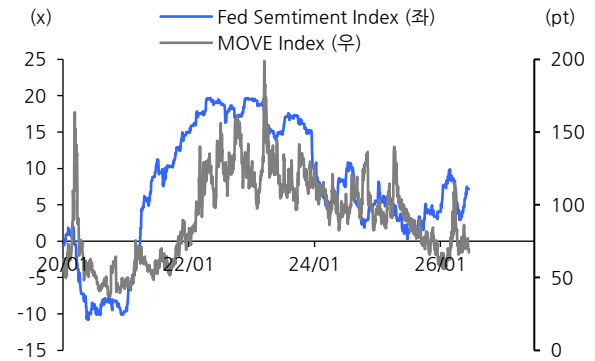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9> 이제는 물가 안정에서 기대가 나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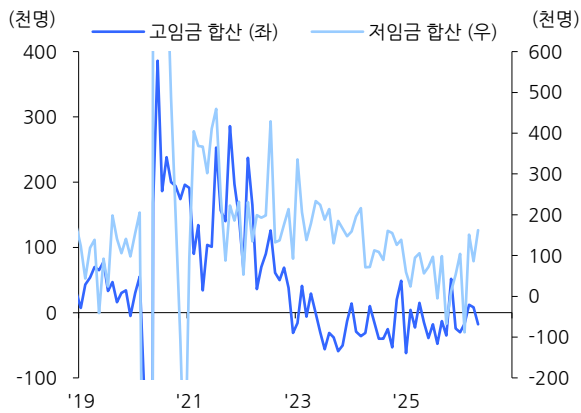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0> 채권 변동성, 연준 발언 색채도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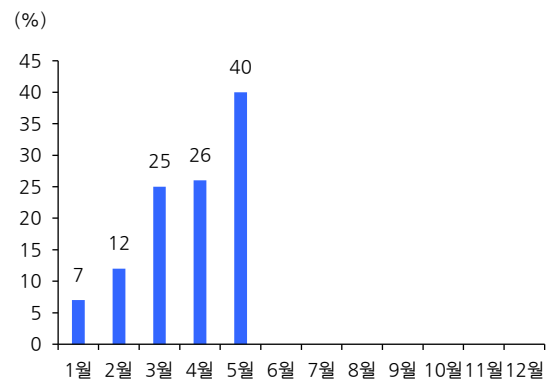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1> 견조한 고용에도 임금-물가 스파이럴 제한적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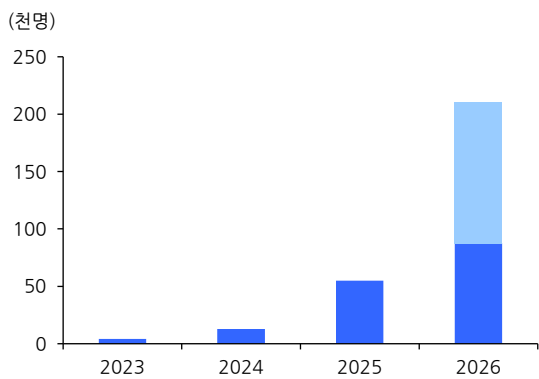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12> 시를 사유로 제시한 비율 3개월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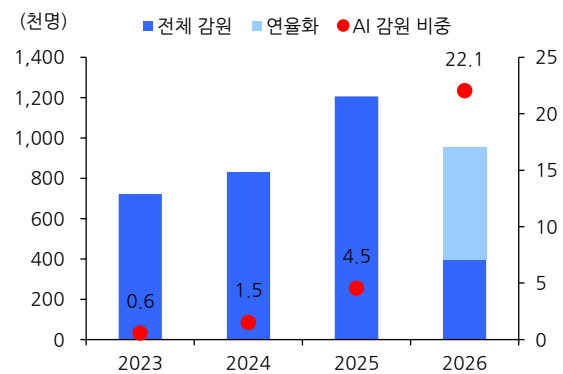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현대차증권

<그림13> AI-Driven Job Cuts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현대차증권

<그림14> 전체 감원 vs. AI 감원 비중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현대차증권

소프트웨어 산업

최근 약세 배경과 향후 방향성 점검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5월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SaaS 사이에서 데이터와 워크플로우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제시. 현 시점에서도 논지의 유효성은 견고하다고 판단하나, 6월 초 이후 소프트웨어 섹터는 세 가지 요인으로 추가 하락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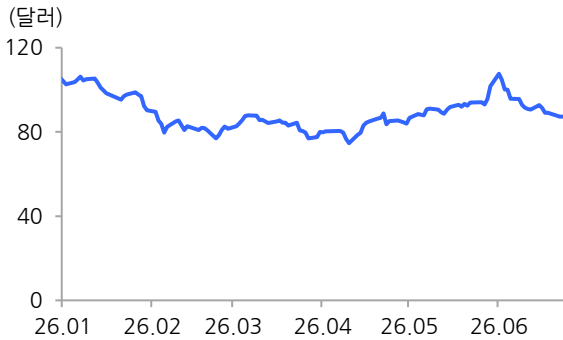
- ① 실적 노이즈: 어도비는 FY2Q26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 CFO 사임이라는 경영 불확실성과 함께, 유료 전환보다 사용자 기반 확대를 우선하는 전략 전환에 따른 ARR 부담이 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 액센추어는 FY3Q26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엇갈린 실적 기록. 주가는 연간 매출액 성장 가이드스 상단을 하향하고 신규 계약이 감소한(YoY -2%) 여파로 18% 급락. SaaS가 보유한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는 AI 에이전트와 레이어가 다르다는 내러티브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실적 부진이 섹터 전반의 동반 하락을 유발
- ②오라클 재무 리스크 재차 부각: FY2026년 중 전체 인력의 13%(약 21,000명) 감축 사실 확인. 구조조정 비용은 \$18.4억으로, FY2027년 CAPEX \$700억 집행 계획과 \$400억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 겹치며 재무 부담이 가중. OpenAI 불확실성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점 역시 동사의 RPO 가시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 ③수급 관망: 소프트웨어 섹터 수급은 현재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판단. 2H25 수급 이탈과 추가 동반 약세, 연초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추가 반등 이후, 현재는 플랫 상태. SaaS 산업이 반등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이즈 발생 시 수급 이탈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분기별 실적 검증을 통한 단계적 접근 유효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과금 체계 전환 등 사업 구조에 따라 실적 차별화가 진행 중이며, 핵심 논지는 유효하나 기업별로 시장 인정 속도가 달라지고 있어 분기별 실적 검증이 중요한 시점. 또한 앞서 언급했듯, 섹터 전반에 걸친 관망 기조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투자심리는 실적 외 변수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노이즈 발생 시 수급 이탈로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반면 향후 분기별 실적이 에이전트 대체 우려를 반박하며 내러티브가 회복될 경우 자금의 빠른 재유입 역시 가능한 구조. 멀티플의 단계적 정상화는 이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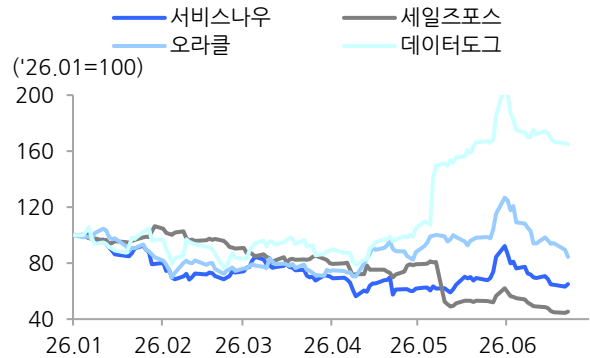
Analyst 정문영 ansdud@hmsec.com

<그림1> 소프트웨어 대표 ETF(IGV) YTD 추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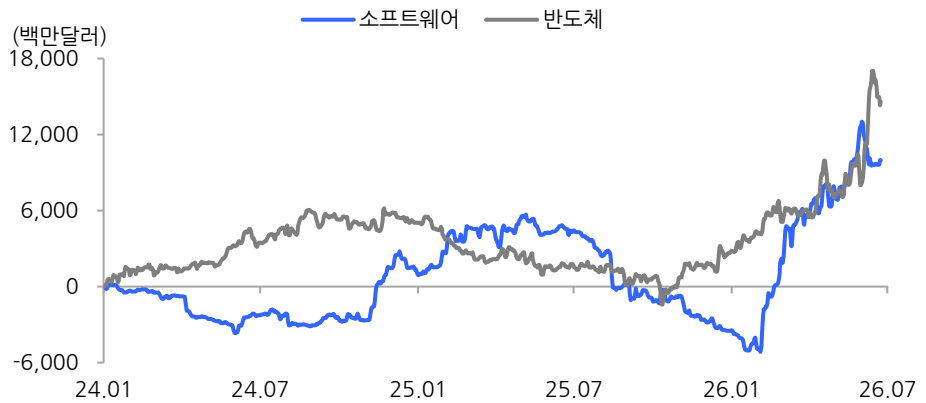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2> Top Pick YTD 추가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3> 반도체 VS 소프트웨어 수급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주: 반도체는 SOXX ETF, 소프트웨어는 IGV ETF 수급 추이로 확인

<표1> Top Pick 최근 실적 점검

기업	매출 성장률 (YoY %)	RPO 성장률 (YoY %)	영업이익률 (YoY 변화)
서비스나우	22	25	32.0(+1.0%p)
세일즈포스	13	11	34.8(+2.5%p)
오라클	21	363	32.0(변화없음)
데이터독	32	51	22.2(+0.4%p)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2>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실적 발표 예상 일정

기업	발표 예정일 (현지 기준)	기업	발표 예정일 (현지 기준)
서비스나우	7월 22일	마이크로소프트	7월 29일
세일즈포스	9월 2일	팔란티어 테크	8월 3일
오라클	9월 8일	스노우플레이크	8월 26일
데이터독	8월 6일	워크데이	8월 20일

자료: 각 사, 언론종합,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